

2023년(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총평

변리사스쿨 민법강사 류호권

2023년(60회) 민법개론 시험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작년 시험보다 어려웠다고 판단됩니다.

1.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비중이 줄어서 수험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문의 비중이 높았다.
2. 최신판례의 출제비중도 꽤 높았다.
3.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 놓은 문제들이 꽤 보였다.
4.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조금 높았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민법 점수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도차이는 좀 날텐데 초고득점자 영역에서 이 분들은 별로 당황하지 않고 맞춰야할 문제들은 착실하게 맞춰내기 때문에 그래도 90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트라인 근처에 계셨던 분들은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승부가 날텐데, 처음보는 지문이나 형식에 당황하여 실수를 많이 하신 분들은 평소 모의고사 점수보다 10점 이상 떨어져서 70점대 중후반의 점수를 받으셨을 것 같고, 그래도 침착하게 틀릴문제 틀려주고 맞출 문제 잘 맞춰주신 수험생은 80점대 초중반 정도로 선방하셨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 시험장의 긴장도 등으로 인하여 전자에 해당하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커트라인이 문제인데, 민법만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2~3문제 정도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평균으로는 민법점수만 1.7~2.5점 정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물론 커트라인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지만 수험생들의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을 알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을 밝히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표때까지 커트라인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2차준비라도 미리 해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1차에만 집중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1차시험 후 발표때까지만큼은 1차 합격여부를 떠나 2차과목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우선 총평만 말씀드리고, 문제를 더 깊이 분석하여 조만간 해설과 함께 공부 방법 등까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